

12·19 재보선



누가 뛰나

<3> 장성군수

입지자 6~7명 공천 경쟁 치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난달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선거 대상으로 확정됐다. 관건물이 1일 낮에야 장성군선거위에 도착하는 바람에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지연됐으며, 각 정당별 후보군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수의 중도 하차를 미리 예견한 일부 입지자들은 한 두달 전부터 지역에 머물며 얼굴 알리기에 공을 들여왔다.

“주식회사 장성” 신화를 쓰며 안정적으로 군정을 운영해왔던 김홍식 전 군수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던 유 전 군수의 낙마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군민들도 많다.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출신인 유 전 군수는 탄탄한 인맥을 밑천삼아 국가개발촉진사업 등에 1천억원대의 국비를 확보하고 ‘KT 호남권 물류센터’ 유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두 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전문가가 나와주기를

김양수·김한중·김홍주·신극정·정창욱 씨 등 고일갑·유 前군수 부인 이청씨도 출마할 듯

고대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는 6~7명선. 김양수(57) 전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과 김한중(53) 전남생활체육협회회장, 김홍주(65) (주)한국전자정보시스템 대표, 신극정(57) 전 경기도 정부부지사, 정창욱(55) 전 전남도의원 등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고일갑(40) 전 조 선대 초빙교수와 유 전 군수의 부인 이청씨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를 맡아 부여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김요석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대다수 입지자들은 이청씨의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신당쪽의 경합이 치열한

민주당 연수원장과 한국공항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신극정 전 부 지사도 지역에 내려와 표밭갈이에 나섰다. 정창욱 전남도의원은 고 박태영 전남지사를 보좌하며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을 지냈고 10여년 이상 조직관리를 해온 ‘토박이’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신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동영 후보 전남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고일갑 전남지방자치연구소장은 친환경 농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을 역설하며 민심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유 전 군수의 지지자들은 확정 판결 후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군민의 심판에 물어야 한다’며 그의 부인이 이청씨의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1일부터 재·보선 후보 공모에 들어갔으며 오는 6일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중순께 공천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옛날 선거벽보 저랬지” 1일 오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 기록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이 선거위 부스에서 역대 선거에 사용된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 휩쓸려 민생은 실종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 마감 검증 공방에 항응 파문 국민들 빈축만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검증 공방으로 시급한 민생 문제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빚으며 2 일 마감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감이 끝난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항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빈축을 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17일 국감 시작과 동시에 BBK 주가조작 연루, 상암 DMC 건설 특혜, 도곡동 땅 물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 함께 숙소(유성 R호텔)로 돌아온 임, 김 두 의원을 만나 인근 단란주점에서 밤 11

시30분께까지 양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고 밝혔다.

L씨는 “이 술자리에는 김 의원의 지인 4명도 동석했지만 마담 이외의 접대부는 없었다”면서 “당시 임 의원은 물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 함께 숙소로 먼저 왔고, 다른 사람들이 남아 술을 더 마셨는데 김태환 의원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뤄지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17대 마지막 국감이 대선을 앞둔 정쟁에 휩쓸릴 것이라는 점은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우선 대선 일정으로 정기국회 회기 자체가 100일에서 84일로 줄었고, 국정감사 기간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17일부터 11월2일까지 17일 동안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예년보다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국감 이후에도 대선 후보 검증 공방은 계속될 예정 이어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항응’ 임인배·김태환 의원 술자리 ‘3차’도 갔다

‘국감항응’ 파문에 휘말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의 임 위원장과 김태환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지난달 22일 밤 또 다른 술집에서 늦게까지 ‘3차 술자리’를 가졌

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두 의원이 국감 당일 ‘2차 술자리’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항응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전 소재 한 대학의 팀장급으로,

임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L씨는 1일 “대덕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렸던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성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전 소재 한 대학의 팀장급으로,

현대백화점 창사 36주년 축하 페스티벌

2007. 11/2(금)~11/4(일), 10일간

현대백화점측 측재하고
항상적인 파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1/2(금)~4(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합니다

Life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창사36주년 축하 (카드+상품권+현금 합산 가능)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총기간: 11/2(금)~11/4(일) 10일간 | 총대상: 모든 세븐종합서비스 | 총합계: 카드/상품권/현금 합산 가능 구매금액 환산

10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5만원
6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3만원
4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2만원
2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1만원

※기타혜택: 당일 구매 금액중에 한하여 환급 가능하며, 한 건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지문을 참조하십시오)

창사36주년 축하 수입 명품 핸드백을 드립니다

총기간: 11/2(금)~11/4(일) 10일간 | 총대상: 모든 구매고객(상품권) | 총합계: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료인 상품

트렌드 핸드백	에이프르 핸드백
에이프르 핸드백	에이프르 핸드백
에이프르 핸드백	에이프르 핸드백

※이름 3개 이상은 기본, 4개 이상은 기본이후 1개씩 추가 20%의 할인입니다. (일부 품목 제외) | www.hyundai.com | 안내: 112-1111 | 11월 2일 11시 30분부터 11월 4일 11시 30분까지

창사36주년 축하 현대드림투어 「파타야」 행운 경품대축제

대상: 당일 5만원이상 구매고객 대상 경품을 통해 총 2명의 파타야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총기간: 11/2(금)~11/3(일) | 총대상: 모든 고객 | 총합계: 10명

신청: 11/2(금) 오후 2시 10분 | 혜택: 현대드림투어 | 문의: 062515-2031

※이름 3개 이상은 기본, 4개 이상은 기본이후 1개씩 추가 20%의 할인입니다. (일부 품목 제외) | www.hyundai.com | 안내: 112-1111 | 11월 2일 11시 30분부터 11월 4일 11시 30분까지